

고창군 농번기 영농일손 확보 총력전

농촌인력지원상황실 가동

인력 농가 연계·중계센터 확대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번기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임채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고창군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 지역 내 일손 수요 조사와 함께 필요

한 농가에 인력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고창군은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고창농협·흥덕농협)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구인농가와 구직자 인력 중개, 농작업자 교통비와 숙박비, 현장실습교육 및 농작업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영농작업자 확보를 위해 도농 인력 중개서비스를 통한 구인공고를 통해 도시민의 유휴 인력도 최대한 모집한다. '고창군로컬JOB센터'에서도 등록한 구직인과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연계될 수 있

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복분자 수확철에는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추진, 농촌일손돕기 참여 기관이나 단체의 지속적인 모집으로 농작업 적기에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영농일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창군 민·관의 울림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농촌인력지원상황실 운영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영농인력 수급 불안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춘향제를 대폭 축소해 비대면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제90회 춘향제 춘향제향 모습. <남원시 제공>

남원시, '춘향제' 규모 축소하고 비대면 개최

5월 16일 국악대전, 19일 춘향선발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춘향제를 대폭 축소해 비대면 방식으로 연다고 18일 밝혔다.

춘향제전위는 다음달 3일부터 5월19일까지 8주간 매주 주말에 분산 개최하려던 것을 5월16일과 19일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도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춘향국악대전 등 3개로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 가운데 하나인 춘향국악대전은 5월16일,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미인을 뽑는 춘향선발대회는 5월19일에 각각 진행된다. 9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제례 의식

인 춘향제향도 5월19일 개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춘향국악대전과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제 유튜브 채널인 '남원와락'을 통해 중계된다.

춘향제는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축제로 올해 91회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등 3개 프로그램만으로 단촐하게 치렀다.

운영부 춘향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축제를 축소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갖춰 춘향 정신을 충실히 이어가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 예방천리마실길 '반려견과 함께 걷기 좋은 길' 선정

섬진강변 따라 4km 구간

펫즈고 트래블 등과 홍보 협약

순창군 예방천리마실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순창군은 예방천리마실길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에어비앤비, 펫즈고 트래블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순창군은 각 관계 기관과 협조해 예방천리마실길에 안내 표지판 설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들을 위해 섬진강 마실휴양숙박단지를 기점으로 현수교를 거쳐 용평산까지 4km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걷기 좋은 길로 지정했다.

이 구간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으며, 길이



순창군은 한국관광공사, 에어비앤비, 펫즈고 트래블과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반려견과 함께 걷기 좋은 길 예방천리마실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군 제공>

평탄해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코스다. 이남섭 순창군 부군수는 "섬진강 예방천리마실길이 반려동물과 관광객이 함께 힐링할 수 있

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kwangju.co.kr

남원시, 원불교 범종 금암공원 이전 업무협약



남원시와 원불교 남원교당은 지난 17일 범종의 금암공원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 범종은 지난 1969년 남원시민과 교도들의 기탁금으로 만들어져 1980년대까지 타종돼 왔다.

이후 교당 이전으로 완주군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수계봉원에 보관됐던 범종이 노암동 금암공원으로 이전된다.

남원시는 금암공원의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가족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스토리텔링 등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범종 인수를 위해 금암공원 내 조각단청과 목조 보수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까지 내·외부 보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불교 관계자는 "남원시민의 이름이 새겨지고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범종이 남원시로 돌아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호남고속도로 삼례~여산 지점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삼례~여산 지점(편도 3차로)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지구대 관할 고속도로 사망사고 9건(12명) 중 2건(5명)이 발생한 곳으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점·종점에서 과속을 측정하고, 구간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체크하는 3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일반 과속단속카메라보다 과속비율을 25%, 교통사고를 42% 줄이고 인명피해도 45%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군산시·고창군도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전북대병원·고군산군도 등 3곳

LH개발지구·백양 택지구 대상

익산시에 이어 군산시와 고창군도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전수조사를 벌인다.

18일 군산시와 고창군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투기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군산지역은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이 조사 대상이며, 고창지역은 LH 공공주택 개발지구, 백양 택

지지구, 역사문화관광 도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조사 대상은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를 찾아낸 뒤 강도 높은 대면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용을 들여다본다.

군산시는 오는 26일까지, 고창군은 31일까지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보를 받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자체 징계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